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 ✓ Gas Natural Fenosa, “LNG 캐리어 신조발주 필요 없다”
- ✓ LNG 캐리어 선주들은 용선 계약을 맺고 싶어 혈안인 상황
- ✓ 펀더멘털 측면에서 LNG 캐리어는 공급 과잉임이 확인됨

LNG 캐리어 신조발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공급 과잉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LNG 캐리어 대한 펀더멘털 분석 결과 공급 과잉이 심화되어 추가적인 발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같은 LNG 캐리어의 공급 과잉 상황을 스페인 유틸리티 회사인 Gas Natural Fenosa가 최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Gas Natural Fenosa의 해상 운송 담당 이사인 Jorge Zickermann은 TradeWinds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변화했고 우리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용선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선주들이 많아 굳이 신조 발주를 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유가 있다.”며 LNG 캐리어 용선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과잉의 정도를 언급했다. 실제 LNG 캐리어 선주들은 Gas Natural Fenosa와의 LNG 캐리어 용선 계약을 체결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겨울 중국이 동절기 수요가 크게 발생하며 LNG 스팟 수입을 늘리며 운임이 치솟았고 올해 1 분기에 투기적으로 선박 발주가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LNG 캐리어는 아직 넘쳐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배가 많아 굳이 신조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Gas Natural Fenosa

Gas Natural eyes existing LNG ships over newbuilds

Spanish utility Gas Natural Fenosa may look at speculatively ordered LNG carriers and existing tonnage when it goes out to the market for its next shipping requirements. Gas Natural maritime transport director Jorge Zickermann said: “It is not so necessary to have a newbuilding tender with specific vessels for your requirements because the market has evolved and we see that there are owners taking commitments on vessels that are perfectly fit for purpose.” “We are a little bit more relaxed in that sense, so that’s why we are also exploring the scenario of taking vessels from the existing market.”…(중략)… LNG shipowners have been eagerly awaiting an anticipated tender for LNG tonnage from Gas Natural. (후략)

자료 : TradeWinds(2018 년 5 월 31 일),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